

중소 수출물류 지원 대구시, 최대 400만원

대구시는 2022년에도 지역 수출기업이 글로벌 물류난을 극복하고 견조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물류비를 역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보다 2억 원을 증액한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역 중소제조기업 145개 사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대구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부담한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 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보험료 등을 기업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현지의 하역불가로 발생한 반송물류비(shipback)와 운송 지연으로 인한 지체료(Demurrage)/Detention)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한 물류비용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봉쇄 조치가 겹치면서 지역 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구시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탁 기자

위풍당당 대구 토종 가스 中企, 글로벌 기업과 나란히

방문객 발길을 끌기 위한 다양각색의 전시관

엑손모빌, 쉘브론, 헬 등 글로벌 기업 대구세계가스총회 부스 차려
센서 기업 '세성', 가스 측정장비로 올해 매출 4백억원 도전
화성밸브, 국내시장 70% 이상 점유하고 글로벌 시장 노크

엑손모빌, 쉘브론, 헬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쟁쟁한 기업들의 부스들로 빼곡한 대구세계가스총회 전시장에 당당히 독립 부스를 차린 지역 중소기업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의 에너지기업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가스공사나 대성에너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물론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답게 이들 기업은 이번 전시장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지나 전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지메슨과 에머슨 사이에 세성(SaSung)과 화성밸브(HS Valve)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기업 부스가 보인다. 바로 이들이 이번 대구세계가스총회에 첫 출사표를 내민 지역의 토종 중소기업이다. 세성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전자제조 서비스 전문업체로, 전자센서와 통신기술을 활용해 유해가스 유출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가스 측정장비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세성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초기부터 연구개발에 투자를 지속해 온 결과, 2020년도에는 5백만불 수

출입을 수상할 만큼 성장해 올해는 매출 4백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밸브는 대구서 서구에 위치한 밸브제조 전문업체로, LPG 및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불밸브 분야에서는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전시장에서 만난 세성과 화성밸브 관계자는 세계가스총회가 대구에서 열리지 않았더라면 독립 부스를 차려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구세계가스총회 덕분에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대구세계가스총회를 향한 열기가 뜨겁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2년 만에 열리는 첫 대면 국제행사인 만큼 전시관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4일 하루만 해도 미국 182명, 영국 168명, 싱가포르 189명, 태국 121명, 말레이시아 87명, 캐나다 84명, 호주 및 일본 71명, 나이지리아 64명, 카타르 44명, 독일 32명 등 총 2,073명의 해



세성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전자 제조 서비스 전문업체로, 전자센서와 통신기술을 활용해 유해가스 유출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가스 측정장비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외 참관객이 등록을 했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 510, 북미 303, 아프리카 108, 오세아니아 83, 남미 47, 아시아 1,022명 등 각 대륙별로 다 모여 있어 지금 엑스코는 지구촌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만큼 참관객들의 발길을 끌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선,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Petronas)는 말레이시아의 전통 약기(양팔뚝, 차팔뚝)를 연주하며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트로트 가요인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연주해 구경하던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호주의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Woodside)는 기업 이름처럼 전시관 외관을 모두 나무 목재로 꾸미고 있어 부스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친환경기업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 우드사이드는 이날 방문객들에게 무료 드링크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봄비는 핫 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SK E&S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SK E&S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재생플라스틱으로 부스 외관을 장식해 독특한 느낌을 연출했으며, 직원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또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착용해 탄소중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한껏 높이고 있었다. 이외에 한국가스공사는 자사 농구팀 페가수스 로고가 새겨진 농구 게임기를 부스 한켠에 설치해 인기를 끌었으며, 현대자동차는 수소트럭과 버스를 설치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강승탁 기자 sking12@newdailybiz.co.kr

대구세계가스총회 외국인들, BTS 멤버 고향 매력에 퐁당

대구, BTS 멤버 뷔·슈가의 고향... “너무 아름다운 한복”
야간시티투어, 모명재 한국전통문화 등으로 K문화 알려

대구세계가스총회에 참석한 외국인 방문객들이 24일 모명재 한국전통문화 체험과 야간시티투어에 참여하고,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의 매력에 엄지척을 외쳤다.

이날 체험에는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배우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 도착해 전통차 마시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이어갔다.

모명재는 조선에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1912년에 세운 재실로, 그의 호인 '그리워할 모(慕)', '명나라 이름 명(明)'자를 써서 '명나라를 그리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1층 다례·명상 체험실에서 한복을 입고 절하는 법, 차를 우려내 마시

는 법을 배운 뒤에 명상종(singing bowl)을 활용한 소리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경험을 했다.

이어 2층 동의보감 음식 체험실에서는 재료의 효능과 음양오행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동의보감 원리에 따라 서 목이버섯불고기를 만들어 함께 나눠 먹기도 했다.

자신을 BTS의 팬이라고 소개한 마리아(Maria·여·미국)씨는 “BTS의 뷔와 슈가가 입은 한복이 너무 아름다워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뷔와 슈가의 고향인 대구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야간시티투어는 대구의 랜드마크인 83타워와 근대문화골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83타워 전망대에 올라간 외국인

들은 “타워에서 내려다 보는 대구의 야경 분위기가 너무 로맨틱해 마치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다음 일정으로 근대문화골목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3·1 만세운동길, 청라언덕을 둘러보며 대구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엑스코 행사장에만 있을 때는 대구가 그저 현대적인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잘 보존돼 있는 모습을 보니 대구가 더 매력적인 도시로 느껴진다”며 대구시가 마련한 관광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외국인 방문객들이 3·1 만세운동길, 청라언덕을 둘러보며 대구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인기를 반영해 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오후 세 번에 걸쳐 모명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간시티투어는 83타워, 근대문화골목에 이어 25일에는 서문아시아장과 동성로&스파크랜드를, 27일에는 계산예가와 앞산전망대 코스를 제공했다.

박진호 기자 pjh2020@meconomynews.co.kr

DGB대구은행·팀오투, 환전 서비스 출시

300불 이상 환전 시
렌트카 1~2만원 할인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25일 수성동 본점에서 국내 최대 렌트카 가격 비교 플랫폼 카모아를 운영하고 있는 팀오투(대표 홍성주)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환전 고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팀오투의 대표 어플리케이션 '카모아'는 국내 중소 렌터카 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비교, 예약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이다. 전국 547개의 업체에 4만대의 차량을 실시간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화 예약 없이 24시간 모바일로 국내외 차량을 손쉽게 예약·결제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사 DGB대구은행과 국내 최대 렌트카 가격 비교 플랫폼 카모아가 상호 협력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이중 사업자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팀오투는 DGB대구은행에서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환전 고객에게 국내 렌트카 이용료 1만원, 해외 렌트카 이용료 2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특히 팀오투의 '카모아'는 국내 최초 사이판·괌에서 한인 렌트카 업체와 협력, 해외 여행 차량 렌트 서비스에도 편의를 확대했다. 국내 렌트카 예약과 동일하게 100% 한국어의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내 동남아시아, 일본의 렌트카 이용 시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6월 13일부터 대구은행에서 300불 이상 환전을 하면 발급되는 할인 쿠폰을 카모아 예약 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카모아는 이미 업계 최자가 수준의 렌트카 이용료를 제공하고 있다.

강승탁 기자

